

부활과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작성일: 2010. 4. 6. 새벽 2:22

작성자: 장정희 (경남 진해반석)

[새벽기도 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고백
하니

나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 말씀 *

부활절은 생명의 부활이다.

나 여호와의 부활, 성령의 부활,

예수의 부활, 선생의 부활,

섭리사 너희들의 부활이니라.

이 모두를 한 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이니라.

부활된 너희 생명들이여,

가서 생명들을 전도하라.

전도하라 함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육을 영으로 부활시키라 함이니

너희는 어서 전도로써 생명을 부활시켜라.

이 부활 절기에 전도하는 자,

특히 나 여호와의 거룩한 성령의 축복이 임할 것이
니

이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줌이라.

어서어서 너희는 생명을 전도하여

죽은 영혼을 부활시켜

생명록에 너희 이름을 굳건하게 하라.

이 절기에 전도하는 자,

모두 생명록에 너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이미 올라가 있는 자,

더욱 이름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육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옷을 입은 너희들이여,

진정 부활을 맞을 자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부활하고 진리를 듣고 실천함
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라.

특히 섭리사 신부들에게 말하노니

사랑의 부활을 하라.

나와 예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부활을
하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회개,

성령의 열매의 부활을 하라.

부활의 의미는 죽은 행실에서 산 행실로 거듭나는
것이니

이는 죽은 마음을 산 마음으로 살려야만 가능한 일
이다.

오직 너희 산 행실이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너희는 진정 너희 영, 혼, 육, 마음을 부활시켜라.

무엇으로 부활시킬 것이냐?

너희의 정신이다.

너희 정신으로 자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내 아들의 재림이 급박한 이 때,

무엇보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사탄과 싸워 이겨
자신을 신부로 부활시켜라.

때가 너무 급해 부활 절기를 통해

너희를 전도하게 해서 너희를 부활시키고자 함이다.

그러니 나의 뜻 깨닫고 꼭 전도하여라.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여라.

날마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전도이다.

나 여호와도 이 부활절 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었다.

부활시켰다.

내 아들 예수도 너희 선생을 십자가 위에서 살리고

재림 말씀을 통하여 부활시켰다.

또한 선생도 너희를 죄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기도로 부활시켰으니

너희 또한 전도함으로 생명들을 부활시켜라.

그것이 진정 내 아들의 부활을 영광되게 함이니

너희는 생명을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이 삼위와 선생,

너희 모두의 진정한 부활이다.

사랑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진정 너희 생명을 부활시키는 나 여호와니라.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부활하였다.
선생 통해 내가 부활하였듯이
선생이 너희 섭리사 통해 부활하였으니
모두가 선생의 육이라 생각하고 뛰어라.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혼으로 뛰는 자,
진정 영과 육이 부활한 자이니
그 자를 나 예수가 신부 삼아 휴거시킬 것이다.
이는 나 예수의 말이니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다.
사랑한다. 부활하자.

다시 살아난 예수가.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부활하자.
성령 받고 사탄을 무찔러 꼭 부활하자.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영원한 성령인 삼위의 사랑과 선생의 사랑 받고
꼭 부활하자.
오늘도 성령을 퍼부어 주는 나 성령 때문에
너희가 삼위와 선생을 사랑함을 잊지 말라.
사랑해.